오류 없는 삶의 조건 '알리바이'

(욥기 13:1~19)

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3.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5.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오류 없는 삶의 조건 '알리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오류 없는 삶의 조건 '알리바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황으로서 가톨릭 교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가지는 명령이 무오류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가르침을 무오류하다고 교리적으로 못 박는 것에는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가톨릭을 이끄는 교황의 생각과 교황령도 무오류 할 수 없을진대, 우리 같은 사람의 삶이 무오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제목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처럼 평범하고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류 없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장부재증명 또는 타소존재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로 인해 무죄는 성립합니다.

이 알리바이가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 차원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인격적 차원의 알리바이는 가끔 "무책임의 알리바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나의 주체성이 없었다면 인격적 차원에서의 알리바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차원에서의 알리바이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필수

적 조건이 됩니다. 인격적 알리바이가 없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낙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낙원의 삶이었던 이유는 오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기쁨의 삶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기쁨이 유지되는 이유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아담의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에 대한 좋고 나쁨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사업장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주체성이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 응당 돈이 많이 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증상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은 사업장에서 돈이 많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일지라도 불평하지 않는다면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하여 아담의 주체성이 활성화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체성을 활성화 시키시는 장소가 되고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돈이 안 벌려도 기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덴에서처럼 나의 주체성이 사업장에 없다면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하여 나의 주체성 없이 하나님의 주체성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의 조건은 주관적으로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오늘 본문의 욥에게서처럼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지금 욥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잘못이 없다면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고 자녀 열 명을 한 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도 떠나버렸고 동방의 제일가던 의인으로 불리던 명성도 사라져서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이 바로 에덴의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내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죄인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자신이 죄인 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친구들의 책망에 대해 변론하는 핵심 논리는 욥 자신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간격이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자, 겉모습만 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어조로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밀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밀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공포장을 할 때에 공기를 빼내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체성을 빼내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자녀가 열 명이 있었으나 그들과 관계할 때에 자신의 주체성을 빼내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재산에도 그랬고 아내나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주체성을 빼내었습니다. 주체성은 곧 내게 좋거나 나쁜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을 좋다고 여겨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안 벌리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겨서, 인간관계에서도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면 나쁜 친구로 여기고 돈 벌게 해주는 사람들을 좋은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책도 읽고 불철주야 뛰며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성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 막대한 재산을 주셨다가 가져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인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재산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돈이 있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나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며 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착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밀착된 영적상태는 반드시 인격적 알리바이를 수반합니다. 나의 주체성을 빼내야만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만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주체성이 활성화되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수풀 뒤로 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밀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체성은 죽어야 하고 억눌려야 하고 진공포장을 할 때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밀착하고 싶다면 사업장에 대한 나의 주체성이 빠져나와야만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밀착하고 싶다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녀에 대한 나의 주체성을 빼내야만 합니다.
욥이 그 소유들을 다 잃자 친구들은 상식에 근거하여 욥이 큰 잘못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 분명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던 욥에게는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켜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

다. 자신의 판단과 소원과 계획과 의지를 관여시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어서 현장부재증명이 가능한데 누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주체적 의지와 결정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에덴의 기초이며 근거였습니다.
욥의 확신은 어리석고 우매하고 교만해서 자기에게 오류가 없다고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욥에게 막대한 재산이 주어지고 열 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체적 결단이었고 이끄심이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죽임으로 절대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안 벌리더라도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일은 더욱 아닙니다. 몸에 병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메스로 살을 째야하는 아픔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을 통해 죄악 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오류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설령 병이 낫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에덴의 삶에 금이 가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부정적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체성이 이 삶의 현장에 없다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면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지 자신의 주체성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신앙적 경지에 대해서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착상태입니다. 진공포장을 할 때에 공기를 빼내듯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체성을 빼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체성을 빼냄으로서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무오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인격적 주체성의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먼저 내 주체성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이 죄악임을 인정하고 그 죗값을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욥이 자신의 주체성을 빼낸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의 영역에 처하든지 내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고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나의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되게 됩니다. 나의 주체성이 죽은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활성화 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내가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고 여길 때에 나의 주체성 대신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로인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장님과의 관계를 맡기고,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설령 회사에서 잘릴지라도 그것이 내 오류로 인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오류가 아니라는 것은 인격적 알리바이가 성립했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사장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내가 회사에서 잘렸을지라도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합니다. 사업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만을 좋다고 여기는데 세상에서 배운 선악의 기준으로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 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체성이 활성화 되는 것이 이미 오류이기 때문에 오류로 시작 된 삶은 오류 밖에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과 상황과 사건들의 삶의 영역에서 인격적 주체성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알리바이가 분명하여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나의 무오류성이 분명해진다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의 근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없는 삶을 무책임의 알리바이라고 비난하겠지만, 이 세상은 바늘 끝만큼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메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물에 나의 주체성으로 인한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고 오류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우리의 인격적 알리바이를 기필코 만들어낼 때에 반드시 에덴의 삶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요술 방망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심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만나는 대상들마다 삶의 영역마다 알리바이를 만듦으로서 무오류의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